

INSTALLATION

ARCHEOLOGY IN THE NETHERLANDS



<Archeology in the Netherlands> is installation for the National Museum of Antiquities, Leiden, Netherlands. In the new exhibition the chronologic course of time is displayed on a continuous mold. A mold is with the exact same width and thickness throughout the length; a swaying ribbon. The design of the ribbon has been born of philosophical and architectural contemplation. Here history is a clear chronologic arrangement with the emphasis on continuity. History precedes the present, the 'now'. The word 'now' is not a distinguished era, it's just a part of a chronologic whole that wi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The ribbon symbolises this ongoing history. The ribbon is used in a flexible way, it represents the changing human habitat by bending, swaying or arching. Sometimes it is the flat, bleak steppe, a riverbank, the dense wood or an uprising builded environment with citywalls and gates. The ribbon is entirely made of medium density board. 5m parts were pre-fabricated, put together and spray-painted on location. Headlines are laser-cut in the top layer, reliefs are moulded and cast in Polyurethane. The showcases in the ribbon are constructed of Corian.

<네덜란드의 고고학>은 네덜란드 레이던 지역에 위치한 국립 고대 유물 박물관의 새로운 전시를 위해 제작되었다. 이 설치물은 전시 공간 전체에 동일한 너비, 길이, 두께를 지닌 연속적인 띠를 배치함으로써 연대기적인 인간의 흐름을 연속적인 형태로 표현한 작품이다. 디자인은 '이 공간에서 역사는 그 영속성을 강조하며 연대기성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과거가 현재의 '지금'을 거스른다'라는 철학적이면서 건축학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이 문장의 '지금'은 구분 가능한 특정 시기가 아니라 미래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가운데 일부를 의미한다. 이처럼 공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띠는 역사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작가는 이러한 연속적인 띠를 구부리거나 아치형으로 휘고 복잡하게 변형하여 변화하는 인류 문화를 표현했다. 이러한 변화는 편평한 대지, 황량한 초원, 강둑, 울창한 숲, 도시의 높은 벽과 관문으로 둘러싸인 환경을 의미하기도 한다. 설치물은 중밀도 섬유판으로 만들어졌으며, 각각의 부위는 5m 크기로 사전 제작되어 이를 공간 내에서 조립하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도색하여 마무리했다. 상단의 표면은 레이저로 커팅되었으며, 양각 모양은 폴리우레탄으로 주조된 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제작된 연속적 설치물에 인조 대리석 재질로 만들어진 쇼케이스를 곳곳에 배치시켜 전시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www.kinkorn.nl

